

★ 2020 경기 합격자 : 합격수기 개요★

1. 학습자분석
2. 실패원인분석
3. 서브 만들때 주의사항
4. 스터디 방법
5. 백지쓰기 방법
6. 기출분석 , 교과서분석
7. 교육학
8. 월별 시간표

★나 자신이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Q: 서브제작 or NOT

A:

먼저 자신이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중고등, 대학시절, 임용시험) 학습경험을 상기시켜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초수생일 경우, 이론을 이해하는 시간마저 빠듯하기에 서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수때 3,4월 심화 프린터는 양면이 아닌 단면으로 인쇄하여 왼쪽페이지는 이론, 오른쪽 페이지는 필기서브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전년도 초수합격생 방법이여서..)

재수생 이상일 경우, 공부를 하다보면 인터넷, 서적 혹은 여러강사들의 이론이 여기저기서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때는 서브를 만들어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1-1.Q. 서브제작시, 손필기 or 워딩

A:

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악필이면 무조건 워딩을 추천합니다. 시간절약도 되구요. (제가 악필이었기에..)

그러나 손필기로 표를 그리거나 도형을 그려 정리가 되면 잘 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큰 틀은 워드로 서브를 만들고 필요한 부분에 공백을 두어 그곳에 손필기로 보충하였습니다.

2. Q. 온라인 스터디 or 오프라인 스터디

A:

먼저, 인간관계에 예민한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ㅜㅜ 어느 순간 제 사회성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항상 피하는게 맘이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이나 학업병행)들은 오프라인 스터디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 공부에 모든 일과를 올인하는 경우였지만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는 것이 이동시간, 준비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전화, 밴드스터디)를 많이 애용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1회 마음 잘 맞는 지인 4명과 문풀위주의 그룹스터디 했습니다.

3. Q. 새벽학습형 or 야행학습형

A:

임용시험자체가 오전에 시행되기에 새벽학습형이 실전 시험에서 뇌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굳이 자신이 야행학습형인데 새벽학습형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행학습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공부를 진행하다가 시험 2달 전부터 조금씩 새벽학습형으로 공부리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전 10시 전후 기상 ~ 새벽 2 취침의 공부리듬 이였다가 시험 두달전부터 1~2주 단위로 30분씩 조금씩 앞당겨 시험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오전 6시 기상 ~ 저녁12 취침의 공부리듬을 바꾸었습니다.

1. 학습자 분석

★ 질 << 양 = 양이 되면 질은 알아서 따라온다.

'질적으로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일단 '양적으로 지식이 적립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양은 공부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저는 하루에 오전 9시 ~ 저녁12시까지 독서실에 있었고 그 중 식사시간 2시간, 휴식시간 1-2시간 =총 11시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11시간을 당연히 공부만 하진 않았습니다. 집중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폰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대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되뇌었던게 '나는 공부하는 업무를 가진 회사원이다' 생각하고 나의 업무를 책임감있게 끝날때까지는 퇴근은 못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2. 실패 원인 분석

이전 임용시험에 불합격을 경험한 분들은 이전에 나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먼저 들여다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졌을 때 가능하지요.... ㅏㅏ 전 3월 후반이 돼서야 정신이 들더라구요....) 저는 작년에 0.45점 차이로 서울지역을 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실패원인은 "책에 있는 모든 글씨를 다 외우자" 식의 마인드로 임했기에 시험 전날까지도 이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체화 되지 않고 머릿속 여기저기 뚱뚱~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를 고쳐 올해는 "중요한 이론을 완벽히 챙기되 조금씩 확장시키자" 라는 공부법으로 임하였습니다. 예를들어 3,4월 심화이론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외우고 이후 1,2월 기본서는 이해를 위한 용도의 참고하고 5~10월 문제풀이 내용은 이전에 공부했던 3,4월 이론의 심화(확장)정도로 정리하는 하였습니다.

3. 서브만들때 주의사항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브제작은 무조건 6월말 7월초에 끝내야 합니다. [암기시간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모든 영역들을 함께 완성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완성되는 영역을 먼저 내보내야(출력) 합니다. 서브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지인이 무슨 출판사에서 교과서 만드냐고 소리까지 들었던..] 저의 경험으로 주의사항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글자체, 크기, 볼드체로 강조할 것 구분하되 -> 너무 요란하게 하지말기!
(이쁘게 중요하게 아니라 서브를 보고 5분뒤에 시각적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의 주목성만 가질 것.)
(색상은 워드에서는 되도록 자제하고 출력 후 형광펜을 활용 할 것)
2. 너무 지엽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다 넣어서 .. 새로운 이론서를 절대 만들지 말자
(뭔가 중요해보이지만... 장썸,위상썸이 안다루는 내용이면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럴땐 아주 간략하게 키워드 1~2개만 연결시켜 넣을 것)
3. 자신만의 간략한 언어를 바꾸어 사용하면 서브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저의 경우, '교육과정'은 -> '㉠'로 표기, '바뀐 점'은 Change의 약자인 '-C->' 로 표기, '영향준 점'은 Effect의 '-E->' 로 표기. '영향받은 점'은 소문자로 '-e->'로 표기. '비판점'은 공격 Attack의 '-A->'로 표기. '그러나=반전되는 점'은 'But'으로 표기. '긍정적인 내용' 끝에는 '♡' 표기. '부정적인 내용' 끝에는 'ㅏ' 표기.. (죄송합니다ㅏㅏ)
4. 내용을 업데이트(보충)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빈칸의 여백을 많이 냅두어 그곳에 5월 강의(문제풀이)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이론을 추가로 적거나 손필기로 도형이나 표를 그려 정리한다.

★ 쌓이면 무서운 전화 스티디방법 2가지만

-1) 기상스티디 (30분) ★:

전날 공부한 내용 중 중요한 것 목록표 작성하여 짝 스티디원에게 전송하고

당일 일어나자마자 짝스티디원에게 전화걸어 인사한 뒤 바로 인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전날 교육론 공부했을 때

‘1.표기능 한계점 2가지 / 2.시각문화 장점 3가지 / 3. 다문화교육 정당성 1가지 ’

와 같은 목록표 작성 후 카톡으로 짝스티디원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전화걸고 상대방이 “ 권쌤 표기능 한계점 3가지 말씀해주세요.” 하면 제가 대답~

그리고 짝스티디원이 낸 목록표를 보고 “맹쌤 ~~~~ 3가지 말씀해주세요~“ 하면 짝스티디원이 대답~

-2) 밥티디 ★★★강추!! (1시간) :

= 초반)사담 10분 + 중반)인출 45 분 + 후반) 서로 계획말하기 5분

서로 짹짹거리는 소리로 포용할 수 있는 선생님 한분과 한 영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한 점심,저녁시간에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분과 함께하면 좋아요. 전 정말 밥스티디쌤한테 응원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서로 많이 울기도 했어요 ㅋㅋ 그 결과 올해 둘모두 합격!!^^

-초반 사담 10분 사담시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독서실에 이상한 사람 흉도 보고 날씨는 왜이리 짜증나게 좋냐며~ 서로 위로와 격려도 주고받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입니다. 꼭 사담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안그러면 이후 인출할 때 갑자기 수다타임으로 인해 흐름이 끊기기도 해요 ㅋㅋ

-중반 인출 45~50분:

저는 표현영역을 한 선생님과 1년 넘게 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시험전까지 적어도 10번 넘게 인출 돌린거 같아요. 그것도 세세하게요^^ 표현영역을 정한 이유는 일단 양도 많고 과정이 중요한 영역이어서 글로 외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가장 싫어했던 영역이라 시작했는데 시험전날에는 밥스티디쌤이랑 표현문제가 많이 나오길 빌었던 기억이... ^^. 쌓이면 무서운 시간입니다.

-후반 계획말하기 5분:

인출이 끝난 뒤 5분정도 오후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것인지 계획을 서로 묻고 답하였습니다. 이게 좋은게.. 자신의 남은 시간의 계획을 말하다보면 공부할 방향과 양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던 것 같습니다^^

4. 스티디

5. 백지쓰기

★워드로 백지쓰기

뒤에 8~10월 공부방법에 더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일단 워드로 백지쓰기 하면 장점

- 1) 시간절약
- 2) 악필로인해 내가쓴 글이 뭔지 모르는 사태 방지
- 3) 보관이 편리해 이후 해당 영역 공부 전 리마인드 하는데 수월

단점은

- 1)소근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6. 기출 및 교과서 분석.

★자주 빠르게 보기 > 한번에 확실히 꼼꼼히 정리하기 = 오래본다

1. 이 작품(도판)이 혹은 이 문제가.. 평가원입장에서 4점 짜리, 2점짜리 문제로 낼만한 관점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기 -> 해당사항에 일치된다고 판단하면 그 문제 워드로 간단히 정리

2. 워드 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기

-> 워드로 정리해놓으면 갑자기 공부하다 문득 궁금할 때 f7키로 단어를 적어 찾기가 쉬워요~

3. 저같은 경우는 년도별 문제 그대로 뽑아놓고 워드로 중요해보이는 관점만 간단히 타이핑 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30분 정도? 공부안될 때 빠르게, 자주 봤습니다. (총 20번정도 회독)

비교하자면.. 아는 지인쌤은 기출분석 몇달 해놓고 결국엔 시험전까지 한 2~3번 봤다고 했던가..

시간이 아깝다고 하더라구요. 잘 기억도 안났고.. (지인쌤도 합격해서 비교해서 올려요^^~~)

7. **역사**

1.올해 김현샘 강의 3,4월만 듣고
 책을 토대로 교육학도 서브 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초수때 들었던 김인식 선생님자료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외우기 더 쉽고 와닿는 내용으로만 서브정리)

2.~7월까지 서브제작하면서 아예 암기를 같이했어요.
 ~9월부터 하루에 한영역 목차만!! 백지쓰기 -> 시간내 카톡인증 스터디 활용 ★추천!!
 ~10월부터 문제풀이 스터디
 (이때 권지수샘을 들었던 선생님과 스터디를 함께하여 이번 기출문제 변별되던 기계공토를 맞출수 있었습니다)

3.청킹★강추★: 쉽고 재미있는 앞글자 청킹을 최대한 3월 초반부터 한달에 10개씩 따놓고 외우는 것이 하반기 때 전공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작은 암기수첩에 포스티지로 적어 하루에 한번씩 계속 보면서 인출했습니다.

4.자신만의 서론, 결론 만들기 (그냥 저는 어떤 주제가 나왔든 저렇게 썼어요~)
 -서론:
 1.최근 0000의 교육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2.이러한 000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3.이를 해당영역인 00,00,00,00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론: 본론 시작글, 정리글을 전 무조건 적었어요. (이게 점수에 포함 된다는 하셔서...)
 정리글 쓸 때 무조건 주제언급하면서 본론의 이론과 연결하여 씁니다.

-결론:
 1.지금까지 0000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해보았다.
 2.0000는 교육학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중시되는 논제이다.
 3.이를 한사람의 예비교사로서 깊은 연구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교육학논술의 논제에 따라 적용할수 있는 만능 틀을 만들어서 글적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었습
 니다.

별도로..
 위상 모의고사 점수랑 등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석차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이것을 전 자극제로 사용했기도 한...)
 작년 서울직강생이 20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한 250..? 명 정도 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 속에서 평균적으로 15~20등 정도 였고
 제일 잘나온적인 10등, 제일 못나왔던건 39등 이였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지만.. 처음 보는 이론의 문제는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제끼고
 아는 이론문제를 꼼꼼히 푸세요!!! ^ ^

월 별 시 간 표

8
~
10
일

시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AM 09:00 : 백지쓰기 시작 (워딩) ~ PM 02:00 백지쓰기 완료
백지쓰는 영역내 순서는 서버에 있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시각화 인출에 중요한 것 같아요.
(ex:제 서버순서 기준으로 `표기능-> DBAE-> 다문화-> 시각~`)
그러나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출에서 만나왔거나 정말 중요한 보이는것 먼저 인출워딩했어요.
(ex)작년기준으로 `교육론순서: 다문화->시각문화->오와토나->창미교 / 서미: 구성주의->추표~`)
-PM 02:00~ 03:00: 밥+밥터디
-PM 03:00~ 07:00: 백지쓰기한 것을 프린트한 후 빨간펜으로 채점하면서 수정
(처음에는 빨간펜 내용이 난무하지만.. 점점 횡수가 거둬지면 줄더라구요~
그리고 워드백지쓰기가 좋은게 이부분인 것 같아요... 틀린걸 항상 틀린다는걸 .. 비교하기 수월해요^^)
-PM 07:00~ 08:00: 밥+밥터디
-PM 09:00~ AM 12:00: 해당영역 중 틀린부분을 서버에서 찾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
-★중요: 영역별 백지쓴거 모아서 직강수업전 오전이나 쉬는시간 혹은 어디 이동할 때 보면 좋아요!!

초반에 하루 한영역 전체 백지쓰기를 진행하다보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을 다 채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한주, 두주... 주차를 더해갈수록 오히려 9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전에 백지에서 틀렸던 내용이나 빠졌던 영역이 머릿속에 채워지고 7~10월 문제풀이시즌에서 장쌤,위상쌤이 새롭게 다뤄주신 학습내용이 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주 동안 전영역을 진행하게되면 분명히 시험시 인출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을 장담합니다!!

11
일

**★시험전날 까지 암기입니다. 일년간 봤던 내용도 11월만 되면 새로워 보이는거 다들아시죠 ㄸㄸ??
이때도 밥터디, 기상스터디는 시험보는 2일전까지 그대로 했습니다. 불안감을 최소화하기위해..**

6시에 일어나 기상스터디하고 가장 최근에 백지쓰기한 프린트를 밥먹으면서 혹은 독서실 가면서 빠르게 훑고 다시 암기공부를 시작합니다!
11월이 되면 3일 전영역회독, 2일 전영역 회독 등 11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경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암기했던 내용이 날아가는 그 느낌..ㄸㄸ
그래서 저는 시험 전주까지는 하루에 한 영역을 고집하였고 시험이 있는 주 (예를들어 11월 24일이 시험이면 7일 전) 부터 영역을 하루 2영역씩 묶어서 회독하였습니다!

저도 정말 긴 수험생활 동안.. 너무 방황했고 힘들고 하나하나가 간절했을 때 선배합격자 선생님들이 도움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 고마움을 베풀고 싶습니다. 혹시 내용이해가 안되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kusen07@naver.com 로 메일주세요!
모두 열공하세요!! 할 수 있다!!